

광주전남 통합 직능별 시민공청회- 경제·산업

“통합은 지역산업 확장·일자리 창출 경제 도약 계기”



강기정 광주시장이 26일 오전 북구 스테이지(빛고을 창업스테이션)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경제분야 시민공청회'에서 참석자들과 통합 추진 경과 및 향후 일정 등을 공유하고 있다.

AI·반도체 등 산업계·경제단체·농업인 등 100여명 참석

제조업 데이터화·소상공인 지원 강화로 산업 규모 확장을

광주전남 통합이 지역 산업의 확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현장 목소리가 나왔다.

광주시는 26일 광주창업거점인 북구스테이지(빛고을 창업스테이션)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경제·산업 분야 직능별 시민공청회'를 열고 경제단체·산업계·농업인 등 각계 의견을 폭넓게 청취했다.

이번 공청회는 광주시가 자치구 순회권역별 시민공청회와 병행해 분야별로 추진하는 직능별 의견 수렴으로, 행정통합이 지역경제와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공청회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반도체·인공지능·에너지 산업계, 경제단

체, 농민단체, 광주연구원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